

크리스마스의 기적!

요한복음 1:14-18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소개하기 위해 여러분 중 일부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예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히말라야 외딴 지역에는 **카일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사진). 이 산의 높이는 6638 미터(약 22,000 피트)입니다. 이곳은 네 개의 종교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힌두교에서는 무지의 파괴자인 **시바 신**이 산 정상에 거주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산은 신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첫 번째 지도자가 **열반**, 즉 행복, 지식, 깨달음을 이곳에서 성취했다고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산이 **지고의 행복**을 상징하는 부처님의 거처로 여겨집니다. 티베트 종교인 본교의 신자들에게는 이 신비로운 지역 전체가 모든 영적 힘의 중심지로 간주됩니다. 매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에 따라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카일라스산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이 산을 도보로 한 바퀴(52km) 도는 것이 신성한 의식이며, 이를 통해 행운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카일라스산 정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종교 모두 산에 발을 디디는 것 자체를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이를 존중하여 중국 정부는 이 산의 등반을 금지했습니다. 이 네 종교의 신자들에게는 깨달음, 지고의 행복, 또는 영적 힘을 상징하는 신이 산 정상에 있다고 믿지만, 그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종종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을 묘사합니다.

우리 서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어떤 신이나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거나 접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알려질 수 있다면,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세 겹을 살펴볼 것입니다(사진). 이번 성탄절 시즌에 이미 너무 많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요한복음 1 장에서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아지고 더 기분이 좋아지는 케이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 장 1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 이전부터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로고스’는 누구입니까?

배경에는 적어도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스토아학파**는 로고스를 우주를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비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원리**로 여겼습니다. 이 이성적 원리는 인간의 마음에 거하며, 삶에 일관성과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토아 철학은 실리콘밸리와 캐나다 정치인들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번영을 위한 이상적인 틀로 간주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로고스는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진리와 지혜가 드러나며,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됩니다.

요한복음 1 장 14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고대 세계에서는 이걸 단순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토네이도나 화염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태아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워서 몸을 꿈틀대고 아이 같은 소리를 내는 모습으로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소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에 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Hallmark 영화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허합니다. 예를 들어, *34 번가의 기적*(사진)과 같은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단순히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통해 영화 속 인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로 옆에서 들려주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 장 6-7 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하나님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학자 J.I. 패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권능의 자발적 제한, 고난과 고립, 학대와 악의, 오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능가하는 죽음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인간의 삶 속으로 오셨습니다(성육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하셨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성막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쉐키나”는 “거주”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막은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이었으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막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방식이 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은 이를 "그가 이웃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기적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가족이 당신의 동네,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호기심이 생기죠. "누가 이사 오는지? 어떤 모습일지? 아이들이 있을까?"

시끄럽지는 않을까?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사 오면, 상상과 추측이 현실이 되고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2016 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 아내와 저는 콘도에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바로 위층에는 마약 밀매범들이 동시에 이사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약물 과다 복용 방문자들, 그리고 헤로인과 펜타닐 밀매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며칠 후 풀려나는 갱단 멤버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큰 굉음에 놀라 비상문을 열어 보니, 무장한 밴쿠버 경찰(VPD)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켰죠. 나중에야 우리는 위층 이웃이 살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개월 동안 건물 전체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압박감 때문인지 그들은 떠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이웃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회계사와 간호사 부부가 콘도를 샀습니다. 혼돈에서 완전한 평화로 변한 대조는 놀라웠습니다. 그들과 이웃으로 지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신비주의, 지적 논쟁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할 수 없는 산꼭대기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 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웃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1 장 14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문장 뒤에는 또 하나의 산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에서 구출되고 홍해를 건넌 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출애굽기 20-31 장).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며,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 장에서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백성은 눈에 보이는 신, 즉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자신들을 구원한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모세는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하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출애굽기 33:19-20). "내 모든 선함이 네 앞으로 지나갈 것이며 ...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으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영광의 잔영)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 장 14 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지켜보고, 그의 삶의 장면을 주의 깊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을, 우리는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바로 눈앞에서 보았다." 우리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고, 즐거리를 숙고하며, 그의 승리와 고난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권능의 나타남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독생자’라는 그리스어는 “유일한, 독특한, 사랑받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되거나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아버지와 영원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모든 속성과 영광, 명예에 있어서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 장 1~3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영광과 연결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인애와 성실"이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출애굽기 33:18-19). 출애굽기 34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6)

여기서 "인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hesed)****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절을 묘사합니다. 또한 "진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진리"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 신실하며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 즉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궁극적인 표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한복음 4 장의 예를 통해 살펴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며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위해 수가라는 마을에 잠시 멈춥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간 사이,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으러 나옵니다. 아마도 그녀는 수치심 때문에 이 시간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다섯 번 결혼했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모든 문화적 관습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녀는 조상들과 종교 예배 장소(수가의 그리심 산 또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제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3-14)

예수님은 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그녀에게 종교적 길이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으로 그녀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00% 은혜와 100%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광으로서 그녀의 이웃(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기적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6 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 구절은 14 절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골로새서 1:19). 은혜 위에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한 번의 축복 물결 뒤에 또 다른 물결이 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지만, 이것은 요한이 의도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16 절을 17 절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17 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와 진리는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대신 은혜” 혹은 “더 나은 은혜로 대체된 은혜”를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롭게 드러내며, 진리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내재된 죄성** - 즉,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본성 - 때문에, 그들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한 인물을 가리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46-47:**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실제로 사는 모습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흡수하고, 명확히 하며, “구체화” 하셨습니다. 갈릴리의 또 다른 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은혜를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은혜 - 완전한 은혜 - 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8:6**).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 주 전, 저는 **요한복음 8 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언급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녀를 돌로 쳐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유일한 다른 장면은 십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31:18; 신명기 9:10**). 예수님은 천천히 먼지 위에 십계명을 쓰고 계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라면 돌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숙여 쓰기를 계속하십니다. 나이 많은 이들부터 한 명씩 천천히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한 참석자가 지적해 준 대로, 그 상황에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돌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11**).

정죄가 없지만, 그녀는 변해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율법을 초월한 그의 은혜. 예수님, 더 나은 은혜를 주시는 분. 이것이 크리스마스 기적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 예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출애굽기 33:20 으로 돌아갑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18 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인격적 관계 속에 계셨던 분이 여전히 **“아버지 품 속에”** 계십니다. 한 성경 학자는 이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 년 전, 말하자면 산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설명하셨다”** 또는 “그 이야기를 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궁극적인 방법은 논증이나 신성한 이성이 인간의 지성을 압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생각, 이념, 이데올로기, 종교적 탐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분, 한 인격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의, 논쟁, 주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한 인격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인격에게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는 한 인격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8-9: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제자들이 자기들 중 누가 가장 큰지 논쟁하고, 유다는 배신을 계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3:3)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의 거하는 영광이신 그분은 수건을 집어 들고, 대야에 물을 붓고, 하나씩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유다, 곧 자신을 배신할 자의 발까지도 포함합니다. 몇 시간 후, 유다의 행동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됩니다. 심문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매를 맞고 채찍질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는 거절당하고 정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또 다른 언덕에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산꼭대기,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러난 채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중 하나가 되신 것을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처형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역사를 뒤흔들고, 세계관을 깨뜨리며, 삶을 변혁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 이는 그분의 사랑의 궁극적 계시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산을 올라 그분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큰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잡어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자녀로 받아들이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 기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애쓰고, 생각을 다스리며, 감정을 제어하고, 압박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우치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이 큰 구원에 대해 찬양을 올립시다.